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근본주의와 정통성 성경: 누가복음 5장 36-39절

Tag:율법,율법주의,정통성,근본주의,바리새인,신약성경,누가복음

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눅5:36-39)

세상은 빨리 발전하는 것 같지만, 개인은 한없이 뒤쳐질 수 있다. 발전은 기본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동반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자연히 해당 분야는 뒤처지게 된다.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해서 그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가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편협한 전문가이다. 또 지식이란 것이 매일 새롭게 개선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장되고 만다. 그 결과 대단히 많은 거짓들이 지식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란 대부분의 거짓 지식들이 왜 거짓되는지를 경험해 보고 나서 비로소 참된 전문가가 된다. 그럼에도 얼마든지 내일 새롭고 더 정확하고 더 세련되고, 더 유익하고, 더 실용적인 지식이 연구되어 발표될 수 있다.

그런데 종교적 지식이란 그 특성상 **절대적인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지식이 추가되거나 이전 지식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의 발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새로운 지식이 발견될 낌새가 있다면 즉시 신성모독이라는 업청나고도 엄중한 형벌을 가하게 된다.

종교적 지식이란 사람에게 세계관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심어준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이 되었을 때 비로소 행동과 말에 중심이 잡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세계관, 가치관, 목적의식)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해석한다. 그리고 다시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가다듬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전도함을 받게 되면, 또는 종교를 바꾸게 되면 바로 이 종교적 신념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게 되고, 전에는 소중하지 몰랐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이처럼 종교생활을 지속하면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관은 잘 바뀌지 않으며, 아주 조금씩 서서히 바뀌는 경향이 있다.(그렇더라도 신념의 틀 안에서 바뀐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언행을 판단하게 된다. 결국 섯부른 판단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갈등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연구하고, 실험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가장 극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다. 그는 매우 유대교적 이었지만, 결국 기독교적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 후 유럽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기본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교황청이 로마에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율법주의적 종교로 변하게 되는데, 모든 행동과 생각과 생활방식은 교황청의 영향과 통제

를 받도록 발전하였다.

그런데 교황청은 성경이 매우 거치장스럽고 걸림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황청은 성경의 가치를 낮추고 교황의 가치를 성경 위에 위치시켰다. 또, 성경이 일반 대중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성경은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고, 세상은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었다.

근본주의란 전통적이고 본래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과거의 전통에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두려는 경향성이다. 이들은 비록 향수에 젖고 싶거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근본주의적 경향을 선택하게 된다.

율법주의란 자신의 가치관으로 주변을 통제 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자들을 말한다. 어느 종교,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이런 자들이 제일 골칫거리들인데, 과당을 짓게 되어있고 비판을 일삼고, 선한 말을 만들어내지만 결코 자기는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근본주의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분명한 자들이다. 이들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지식을 찾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경험하면서 본래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고 적들과 싸우고 약한 부분은 새롭게 보강하는 자들의 경향성을 말한다.

선린교회는 정통성을 지향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적절한 말씀이다.

<찬양예배>

제목 : 헌신을 위한 열심 성경: 마가복음 12장28-34절

Tag:헌신,열심,하나님사랑,이웃사랑,복,계명,신약성경,마가복음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첫 번째 가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 같은데, 그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는 하고 두 번째는 하지 않으면 반쪽이 아니라, 둘 다 하지 않으면 않된다.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핵심 가치는 아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자는 하이힐을 신고 머리에 가

득 채운 커피잔을 올려두고 걷는 것과 같다.

종교적 행동을 하는 것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자랑도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